



통권 14호

후원회소식

발행일/1992. 12. 17.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 (02) 763-2606, 745-5604

청산에 살어리랏다

양 희 철

청산이 이르기를
너 언제나 푸르르게 살아라
하늘을 닮고 흰구름도 띄우며
산을 닮고 솔바람도 살랑이며

靑山이 이르기를
너 언제나 希望속에 살아라
어깨에 좀 더 힘을 빼고 부드럽게
발걸음에 힘을 실어라 당찬 걸음으로

청산과 더불어 사노라면
다람쥐 궁노루 산토끼도 노닐고
철 따라 찾아드는 예쁜 새 고운 소리

다 너만의 기쁨, 청산을 배우는
너로부터 푸르른 빛 비추게 되고
너의 온갖 가난 온갖 시름
흐르는 맑은 물에 띄워보내는

靑山이 하늘을 닮듯
너는 靑山을 닮으며
다래넝쿨 머루넝쿨 어루러진
그런 靑山에서
오래 오래도록 靑山에 살아라

* 이 시는 양희철씨가 12월 4일 광주교도소에서 보내주셨습니다.

* 양희철(국가보안법, 무기형, 30년 복역)—1934년 9월 25일 전북 장수출생, 빈농출신.
고대 경제학과 졸업, 4.19이후 입북하여 1년간 교육받고 남파되었다가 62년 체포되어
무기형을 받음. 후원회원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좋은 글을 많이 쓰고 있음.

조국에 헌신한 자랑스런 아버지

홍 전 영(후원회원)

구로동 '만남의 집'에 닿으니 어느새 짧은 저녁해는 떨어졌고, 겨울비가 추적 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두어번 여기에 오기는 했지만 늘 긴장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도 북한산에 함께 오르며 조선 술잎을 따던 기억이 나서 그 날 이후로 뵙지 못한 선생님들의 모습을 빨리 뵙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저녁 진지를 잡수시던 선생님들께서 일어나 반겨 주시고 자리를 내 주신다. 밥이 모자란다면, 옆집에 사시는 권낙기 선생님 댁에 밥 두 공기를 꾸러가신 김영만 선생님, 마늘 장아찌를 종지에 담아 내 주시는 이내선 선생님, 공연스레 선생님들의 식사시간을 바쁘게 만든 게 아닌가 해서 여간 송구스럽지 않았다.

함께 오신 권오현 후원회장님과 선생님들께서 정겹게 이야기를 주고 받으시는 동안 좀더 진지한 자리를 마련하느라 황용갑 선생님과 옆방으로 건너 갔다.

황용갑 선생님은 참말 지리산 범 같은 분이다.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선이 굵은 얼굴에 강한 눈빛이 그러하고 다부지고 날랜 몸 동작이 그러하다. 지난 가을 북한산에 갔을 때 넓적한 바위가 포개져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군경에 포위되어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는데, 발 딛고선 바위를 들추니 몸을 숨길 틈이 있는기라. 얼른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나를 찾느라 그 주변을 왔다갔다 하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리더군."

하며 위기를 넘긴 순간을 말씀하셨던 것이 인상적이어서 그럴까? 아니다. 그 보다는 언제나 원칙을 틀어쥐고 그것에 조금치라도 어긋나는 것을 통렬히 비판하는 선생님의 생활태도 때문에 그러한 인상을 받

게 된 것 같다. 황용갑 선생님은 이제까지 빨치산을 소재로 쓰여진 글에 대해서도 알뜰없이 꾸짖으신다.

"소부분은 그럴듯하지만 기본책이 빠진 기라. 미끈한 기술로만 다 되는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거지. 이념, 신념, 목적을 가지고 철투철미하게 조직에 복종한 빨치산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러니까 인민과 빨치산이 물과 고기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맺었고, 삶과 죽음의 길을 넘나드는 엄혹한 상황에서 빨치산들의 동지애가 어떠했는지 제대로 형상화하지 못했다고 하신다. 그것은 현재 출판물 그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하셨다.

선생님은 경남 하동군 적량면 상서리가 고향이다. 붉을 적자에 어질량자를 쓰는게 우연이 아닌 듯 그곳은 입산한 사람이 많았고, 대구인민항쟁 이후에는 14살 이상 60살 이하의 남자를 쌍계사 연곡골로 끌고가 학살한 피어린 곳이라고 한다.

어린시절, 어머니가 섬진강에서 잡은 커다란 삼치를 할아버지도 안 드리고 남에게 가져가길래 왜 그러냐고 하니 이거 안 가져가면 돈 너마지기를 떠인다는 말을 듣고 정치의식이 싹텄다고 한다. 서당을 다니며 통감을 배우던 소년은 그 때부터 동네 선배들과 학습도 하고 종교와 미신 노름 등 악습과 싸우는 작은 싸움을 벌여나갔다.

하루는 집 내장을 다시 하려고 모아 놓은 돈을 갖고 아버지가 노름을 하러 갔다며 어머니가 굴뚝에 대고 절을 하시더라. 그래서 선생님은 그 집으로 쫓아가 팽이로 문을 치고 야단을 하니 판돈도 남긴채 모두 도망을 해서 유유히 그 돈을 갖고 사흘 동안 잠

하였다. 동네사람들은 "덕석말이 할 노름꾼을 누가 혼내줬을까?" 하며 두런 두런하였다. 나중에 사실을 이야기 하고 동회에 돈을 내 농자 집 짓는데 보태 쓰라며 돌려 주더라.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1930~40년대의 자각된 소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의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입산하셨습니까?"

9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징병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 고향에 돌아온 이야기를 듣다가 본격적인 빨치산 이야기가 나올 즈음이 되어 급히 여쭙었다.

"1948년 9월 5일이지"

선생님께서서는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듯 날짜를 천천히 짚으셨다. 나락을 베려 거름을 지고 나가는데 마을에 군경이 들이 닥쳤다. 2.7 구국투쟁에 놀란 미군정 세력들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때라 "용감아! 후퇴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산에 올라게 된 것이 빨치산이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싸움에 도시 농촌이 모두 들고 일어났고, 특히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야산대를 조직하여 관내지서 등을 기습하고 악질적인 경찰관료를 처단하는 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중에서)

"초기 싸움은 봉화투쟁이 많았는데, 풀나무속에 대마디를 이어 불을 지르면 총소리보다 요란한기라. 한 군데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한번 봉우리에서 불이 오르면 전라도에서 한번에 척 올라, 그러믄 전선이 휩하지."

무기조차 지급되지 않아 박달나무를 그슬려서 총처럼 메고 다니던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봉화투쟁이 갖는 의미는 참으로 컸으리라. 지리산의 산줄기가 이어지는 곳마다 일시에 불타오르며 총소리를 내는 모습은 상상만하여도 장관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철두철미하게 조직에 복종하는 모습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처럼 통신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 때에 더구나 비합법의 상황에서 산자락에 있는 마을에서까지 봉화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만큼 '산 사람'들의 규율이 철저했다는 반증이다.

거름을 지고 가다 그 길로 산에 오른 선생님은 전쟁 전후로 각각 2년 반씩 모두 합해 5년 동안 산에 계셨다. 그 동안에는 그 사상외지의 투철함과 기민한 활동성으로 '빨치산 중의 금싸리기'라 칭하는 연락사업을 맡아하셨다. 빨치산의 거점을 이어주는 연락원은 조직을 보위하며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한번 간 길은 두번 다시 가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과 마주치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리산의 범이나 곰을 만나는 것은 더 더욱 위험스러운 일이었다.

"한번은 화전민들이 갈쳐 주더라 동무 가거든, 중봉가면은 갑자기 비가 오고 안개가 끼면 담배 한대 피우라 이거야. 화전민들이 키운 딱나무 딱 종이를 말아 피우면 주위에 있는 동물들이 사람 무서워서 피한다구. 그러다가 정말 중송아지만한 표범이 입을 악벌리고 나를 넘어다 보는 거야. 그 땐 꼭 봉알이 얼어붙을 것만 같대. 허허허."

조직의 명령이 적힌 소중한 종이쪽지를 품에 숨긴 채 밤에도 눈을 대낮같이 밝혀 뜨고 산을 타는 연락원.

문맹자와 화전민들을 자기네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밥숟가락을 들고도 학습에 전념했다는 빨치산 대원들의 모습이 눈에 잡힐 듯 연상되었다. 신명나게 산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벽찬 자긍심의 발로일 게다.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로 사격 솜씨가 뛰어났던 별동무라는 여성동지의 이야기, 후퇴하던 군경이 분해하여 버리고 간 총신을 논바닥에서 캐다준 화전민들의 이야기 등 선생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 흘러들을 것이 없었다. 빨치산의 생활이 풍요롭고 안락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선생님의 말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는 것처럼 부드러운 어조로 빨치산의 혁명적인 동지애와 인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뇌곤 하셨다.

1952년, 도살장과 다름없는 광주 포로 수용소.

한 동네에서 입산한 사람들 중 선생님 혼자만 살아.

남아 포로로 잡혔다. 그 대목을 얘기하실 땐 산에서 죽어야했는데 잡힌 게 과오라며 비감해 하셨다.

앞줄 사형. 뒷줄 무기식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공판과 포로들끼리 밀고하게끔 악행을 가하는 수용소는 말그대로 죽음의 도살장이었다.

게다가 군경중에 죄를 지어 들어온 자들은 잔혹하기 이룰데 없었는데 이른바 신입식 때에도 매맞아 죽는 사람이 생겨났다. 대구 출신의 이명기라는 간부는 용이 박히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아따, 사람한테 무슨 피가 그리 나올꼬?"

그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선생님은 일본놈들은 그리 하지 않았다며 비분강개하셨다.

하루에 일곱명씩 사형자 명단이 불리면 며칠씩 밥을 못먹는 사람도 있었고, 현미밥에 소금국을 적서 먹는 밥은 괴혈병을 가져와 술한 사람들이 죽고 말았다. 비타민 한 알만 먹어도 회생할 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동지들을 위해 헌신했던 장대권 동지를 못내 안타까워하며 회고하셨다.

"집에서 부인이 음식과 옷을 가져오면 없는 동지들끼리 쫓단 말여. 얼굴도 미남으로 생긴 위엄성 있는 사람이었지. 본명이 장대권이고 가명이 장재권인데 사형대까지 올라가서 총살직전에 '난 장재권이 아닙니다'고 부인해서 살아난 대담한 사람이여."

그러나 석달 뒤에 결국은 그 동지도 사형장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역사적 사실로 공인되지 못한 사건이 어디 한 둘이라? 거제도 주민 학살사건처럼 사건이 일어난지 40여년이 되어서야 죄없는 양민을 폭도로 몰아 학살한 비극의 전경이 드러난 것처럼 광주 포로수용소에서 이름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진실이 낱알이 밝혀질 날도 꼬 오고야 말 것이다.

〈2 가사사건〉 역시 앞으로 새롭게 밝혀질 사실이다. 큰 창고 2개를 둘로 나눠 포로를 임시 수용했다 하여 2가사라 이름붙여진 2 가사사건은 당시 군경의 식량을 싣고 가던 기차가 전복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행해졌다. 망대에서 중기를 터뜨려 2가사 방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탱크가 수용소 안을 돌아

다녔다고 한다.

선생님도 앞 줄에 서있어 사형을 언도받았으나, 가족들이 구명을 위해 쌀 팔아 돈을 마련하고 지방에서 진정서가 올라온 탓에 무기로 감형되었다. 판사나 검사에게 점심 한끼만 사주면 죽을 목숨도 살아나는 게 대한민국 법이라며 무겁게 말씀하신다. 동지들과 함께 삶과 죽음의 길을 동반하지 못한 것을 가슴아프게 여기시는 빛이 역력하였다.

4.19 이후에 20년으로 감형되어 출소한 후, 하루네 시가만 자고 스무시간이나 목수일을 하였다. 그런 성실함으로 한 때는 단란한 가정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도 찰라의 행복이었을 뿐, 돌이 갓 지난 딸을 남겨둔 채 감호소로 가야했다.

"지금 좀 여고 2학년이나 되었을 기라. 성도 바뀌 놓고, 만나볼 수도 없었서... 지가 나중에 모든 걸 알게 되면 그러는거구 아니면 아님대로 살아야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히 말씀하시지만 따님 얘기가 나오자 마주 앉은 내게도 몽클하고 애틋한 생님의 심정이 전해져 왔다.

지금도 예순 아홉이 연세에 치과 기공소 일을 하시며 달마다 받는 월급 중 3만원씩을 떼어 따님 몫으로 모아 두신다고 했다. 엄연히 낳아준 아버지가 있음에도, 더구나 한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한 자랑스러운 아버지임에도 아직까지 따님과 온전히 부녀지간의 정을 나눌 수 없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밤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의 시간을 빼앗은 게 죄송스럽기 짝이 없는데 어깨를 두드리며 배웅까지 나오셨다. 올 해는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실거라며 대통령 선거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는 말로 인삿말을 대신하셨다. 겉보기에는 엄하신 것만 같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진 황용갑 선생님.

우리들 모두가 선생님의 딸들인데 뭐가 어떻느냐, 괜찮다고 웃으시는 선생님. 당신의 따님에게도 한량 없는 애정을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빌며 '만남의 집'을 나섰다.

새벽을 여는 남편, 안타깝지만 자랑스러워

오 정 화(후원회원)

작년 이맘때가 생각난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웨딩 마치를 올리던 때이다. 1년 동안의 결혼생활에서 얻은 것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잃은 것도 적지 않다.

결혼할 당시는 시부모 모시고 사는 일에 별 어려움이 없을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직접 생활해 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다.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부터 버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내 어머니 아버지, 시동생들을 내 친동생처럼 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다. 본래 성격이 불임성이 없는 탓인지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서 무진 애를 먹었다. 힘들어 하는 나를 옆에서 도와준 건 남편이었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남편의 위로에 힘입어 쌓인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지곤 했다. 지금은 나도 많이 이집 사람이 되어 버린 느낌이다.

안산에 있는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많다.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시부모 모시고 살아야 하는 나를 어머니는 항상 노심초사하셨다. 하지만 무난히 잘 지내고 있는 나를 보고 지금은 많이 기뻐하신다.

새벽 3시. 남편이 일터로 나가는 시간이다.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새벽시장에 나가는 남편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식구들 말을 들어보면 남편은 새벽시장을 다니고부터 성격이 좋아졌다고 한다. 시장에서 일하면서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남편도 말한다.

시장에 다니면서 남편은 민가협 사무실을 드나들

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무작정 말렸던 적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다.

남편을 따라 산에 갔다가 그 분들을 만나 보고는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다. 지금은 나도 회원이 되어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만 그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준 남편에게 다시금 고마움을 느낀다.

집안 살림을 하다보면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겐 가장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끔 투정도 부려보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대로 내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산다.

♣ 월간 「말」지 정기구독을 받습니다.

월간 「말」지를 정기구독하실 회원님들은
37년간 옥고를 치루고 출소하신 이경구
선생님께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연락처 / 주간 - 711-0461
야간 - 755-8905

그 줄기들을 따라가면 백두산까지도 이어져 있을까?

허 유 정(후원회원)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두꺼워진 옷차림과 빨라진 걸음걸이, 저다마 화려하게 단풍진 색채를 자랑하던 나뭇잎들도 하나하나 떨어져 겨울을 예감하게 해 주는 11월의 중순이었습니다.

장기수 선생님들과의 산행과 더불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보장하는 선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젠가 달마다 있다는 장기수 선생님들과의 산행에 따라가고 싶다는 말을 했었는데 선배는 잊지 않고 연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행사에서 선생님들을 뵙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의 생활을 뒤돌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 힘차게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떤 산행이 될까? 산행 중에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며 어떤 말씀들을 해 주실까? 등 갖가지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산행의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당장 풀어볼 수 없는 포장지에 싸인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그 날 따라 비가 올 것처럼 우중충하게 흐린 날씨에 걱정스러운 마음까지 겹쳐 하늘만 쳐다보면서 장장 2시간이나 걸려 도봉산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중에 마주치는 나이 지긋하신 모든 할아버님들이 장기수 선생님들 같이만 느껴져 새삼스레 몸가짐을 가다듬어가면서 시간이 칼이시라는 선생님들 보다 늦으면 안된다는 조바심으로 종종걸음을 쳐 약속장소에 도착해 보니 그리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은 듯했습니다.

선생님 두 분과 양심수 후원회 회장님이신 권오현 선생님, 후원회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저다다 등에 짊어진 가방을 보니 아무생각없이 맨 몸으로 달랑

달랑 온 나의 준비성없음이 쑥스러워지는 거 있죠?

모두들 처음 뵈는 분들이지만 온 몸으로 느껴지는 호의와 따뜻한 미소, 정겨운 악수로 마치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들인 듯한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약 20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 11시 정도에 드디어 산행을 시작하려는 순간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이 정도 비에 후원회 정기 산행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를 피해 산을 내려가는 사람들과 엇갈려 굴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자욱한 안개로 진면목이 가려진 도봉산을 향한 발걸음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슴 가득히 맑게 비로 씻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나뭇잎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의 후두둑 소리, 낙엽섞인 젖은 흙을 밟는 발자욱 소리를 듣는 기쁨, 얼굴로 흘러 떨어지는 빗방울조차도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안개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도봉산의 봉우리를 손짓하며 설명해주는 회원분의 말소리도 생기가 넘치는 듯 합니다.

거듭 연락해 준 선배에게 감사하면서 산을 오르는 동안 비는 그치고 안개는 점점 걷혀 가려져 있던 도봉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따뜻한 햇살까지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산행을 계속했음을 다행스러워하면서 "보인다"의 주인공으로 지칭되시는 한 번도 뵙지 못한 장기수 선생님의 야호 대신에 모두들 소리를 모아 있는 힘껏 "야호"를 외쳤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될 갖가지 시련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쉽사리 주저앉아 버린다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비바람에 산행을 포기했다라면 지금 도봉산 꼭대기에서 밝은 햇살을 온 몸으로 받아 안으면서 밝은 웃음을 웃을 수 없

을 것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쉽사리 살 수 없는 교훈을 얻었다는 뿌듯한 마음과 함께 오늘 좀더 많은 동기와 후배들이 함께 이 기쁨을 나누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산의 줄기 줄기들이 모두 이어져 서울을 품에 꼭 싸안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줄기들을 따라가면 백두산까지도 이어져 있을까?

보이는 산줄 하나 하나를 열심히 설명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언젠가는 통일조국의 깃발이 펄럭이는 백두산과 금강산 꼭대기에서 이 등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리라 다짐합니다.

암벽이라 해 봤자 그리 높지 않지만 생전 처음 「암벽」이란 걸 타보았던 경험과 함께 손바닥 하나로 내 체중을 몽땅 떠받히느라 너무 수고하신 득행형의 선한 미소도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산행으로 허기진 모두의 위장은 보문산장에서 술을 곁들인 푸짐한 점심밥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날 점심밥은 한 마디로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사랑으로 가득 찬 밥상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개인소개를 마친 후에야 너무나 유부녀 유부남같지 않은 분들이 거의가 다 임자있는 몸이었다는 충격적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통일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진 후원회 회원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곧 졸업을 하고 사회인으로 활동하게 될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이암을 끼고 돌면서 시작된 하산길에서 홀연히 사라져, 남은 이들을 애태웠던 3명의 남녀가 있어 한 동안 소동이 있었지만, 역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사람들은 통 하ende가 있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뒤풀이 장소로 거짓말 같이 나타나 길잃은 덕분에 서로들 너무 친해졌다며 자랑까지 했으니깐요. 임은영 선배의 사회로 앞으로의 산행을 좀더 의미있는 자리로 만들자는 내용과 12월에 있을 후원회 사업들에 대해 이야기 되었고, 그 후는 거의 환상적인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통일을 향한 한 길을 가는 양심수 후

원회가 만든 조그마한 해방구의 밤은 이렇게 깊어졌습니다.

일평생을 한마음 한 뜻으로 오로지 통일을 향해 달려오신 선생님들께서 젊은이들의 통일운동 대열에 끼워주기만 해도 영광스럽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너무도 겸손하심에 대한 존경과 함께 쉽사리 조그만 일에도 방황하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믿음과 통일에 대한 열정이 진정한 조국의 해방을 앞당겨 안아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던 잊을 수 없는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과 백두산을 등반할 수 있는 통일의 그 날을 염원하면서

모든 장기수 선생님들 만수무강하십시오.

표지시를 보내주신 양희철 선생님의 산이야기

저는 어릴적부터 하늘의 푸름이 좋았습니다. 높은 봉우리 장안산에 오르면 하늘도 산도 제 마음대로 함께 푸르렀던 한 시절을 꿈속에서 처럼 가꾸어 왔습니다. 금강, 섬진강, 남강(낙동강)의 발원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잠깐 쉬었다 함께 어우러져 질펀히 노닐던 곳. 장수 남원 함양(경남)이 같이 모여 만들어 놓 장안산과 백운산. 신선들만이 산다던 아름다운 고장.

그 곳의 푸르름을 일찍이 배웠기에 지금 회색의 빗길게 드리워져 오는 징역의 길목에서 청산의 꿈을 그리지는 것은 애잔한 회귀성의 발로라고 한다면야. 게다가 외로움을 휘썩리고픈 쟁이들만이 갖는 심리의 변형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산별곡이 좋았거든요. 고향의 산이 좋았거든요. 빙들러 치진 회색의 담장이 보기에 실증이 났고요. 바람도 불다가 정체해 버리는 작은 운동장이 싫었습니다.

하 오랜 세월이 저에게 가르쳐준 아름다움을 좁은 감방 공간에 채곡채곡 채워서 넣는 방법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떠돌이로 방황할 수 밖에요. 극복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의 가혹함이라 할지라도 받아 들여지게 하는 시간(세월)의 마술을 익혔습니다. 타기해야 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연은 그대로 너그럽구요 하나로 되고 뜬 간절한 소망, 심고 가꿀 자리를 푸르른 빛 질은 청산에 있음을 일깨워준 하루였습니다.

박순경 지음 「통일신학의 여정」 「통일신학의 고통과 승리」

편집부

백발이 무성한 예순아홉의 할머니

목원대 대학원 초빙교수

존경받는 신학이론의 정립자일 뿐 아니라 이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가장 성실한 신학자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민족복음화 선교방향을 제시하려한 노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 있었다.

공안당국의 기소이유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 선전·선동에 동조, 이롭게 한 혐의였다. 공소사실 하나는 범민련구성죄이고 둘은 재일기독교회 평화통일위원회 주최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 동경대회'에서의 「기독교와 민족통일의 전망」이라는 강연 내용이었다.

박순경교수는 물론 장장 250여쪽의 모두진술을 비롯, 항소이유서 최후진술 그리고 사실심리에서 공안당국의 낡은 반공이데올로기와 반세기에 걸친 편협적 분단신학까지 준렬히 공박했다. 그것은 또 대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인들과 분단조국 7000만 민족에게 전하는 자주의 함성이기도 했다.

그러나 유죄선고는 예상된 관행이었다. 예수를 고발한 장로·사제들과 그를 심판한 '빌라도'는 2천년의 시간차이에서도 있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통일신학의 여정'은 고통속에서 승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박순경교수께서 출감하여 우리시대의 가장 귀한 두권의 복음서를 내놓으심으로 더욱 확고해 졌다.

기독교나 신학에 대해 전혀 무지한 평자가 책소개를 할 자격은 물론 없다. 다만 통일신학의 고통과 승리에 수록된 주옥들을 연혁시켜 기독교·신학을 바늘

구멍만큼이라도 이해하려는 자세일 뿐이다.

먼저 「통일신학의 여정」은 박교수님께서 1986년에서 92년에 걸쳐 나라 안팎의 여러 신학심포지움이나 강연회에서 발표하신 주제논문들을 엮어 놓은 것이다. 제1부는 '민족과 신학', '통일신학의 정초를 위하여', '민족통일의 신학적 근거와 전망', '민족통일운동의 역사적 조명', 맑스주의와 칼 바르트의 신학사상 등 12편의 논문과 성서명상 '내 백성을 가게 한다.' 등 3편으로 짜있고 제2부는 '제3세계 여성과 신학', '민족통일과 여성신학의 과제' 등 네편으로 이루어졌다.

박교수님은 '통일신학의 정초를 위하여'에서 한 신학의 주제를 민족통일이라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신학이 통일의 과제에 집중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성서적 신앙의 역사성에 대해서 출애굽사건과 예수그리스도의 사건을 든다. 교회의 현재적 증언은 교회가 처해있는 현재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관련해서 성서적 증언들의 의미를 새롭게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한국신학은 성서적 의미와 증언을 한민족사의 현재에서 들어야 하며, 그것은 민족통일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 분단상황이 반민족적이고 미·일 등 재배세력의 표식이며 이 외세와 결탁한 민족내부의 모순이고 이러한 불의한 문제상황의 극복없이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와 구원, 그의 나라와 평화는 이 땅에서 이 민족을 위하여 선포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한국에서의 기독교선교의 왜곡전파이다. 기독교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함께 제국주의 식민국의 반공이데올로기로 연결되는 교회자체도 이러한 문제점과 죄악이 몰각되는 과정에서 한국기독교의 뿌 깊은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된 점을 든다. 그러한 기독교의 역사와 현재를 비판극복하는 것이 한

국신학의 과제로 꼽는다. 신앙과 신학의 자유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며 권력지배욕과 물질소유욕으로부터, 그러한 체제들로부터 새로운 미래 종말적 변혁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로의 행진하는 자유 즉 역사적 자유이다. 그러한 자유는 역사적 기독교와 기독교세계의 오류에 대한 맑스주의·공산주의적 비판과 무신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으로서, 기독교와 세계를 새로운 미래에로 부르는 소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한 자유없이는 통일신학의 주체성은 성립할 수 없다. ... 민족해방과 통일 민중해방과 평등사회실현, 여성해방과 인간성의 평등, 세계 혁명과 인류공동체의 실현이 모두가 다 자유의 소리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 자유의 영 없이는 성립될 수 없고 종말적으로 성취될 수도 없다. 민족통일은 한민족 뿐만 아니라 세계인민이 자유한 미래의 새 천지에도 행진하는 길의 관문이다. 통일신학은 이 길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만날 수 있도록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신학의 여정」은 그 주제와 내용이 방대하고 신학·사상·철학 등 심오한 이론 체계로 짜여져 있으면서도 우리의 현대사와 민족현실같은 살갓에 와 닿는 내용이 실천 주제로 되어 있어 마치 신학과 사회과학의 만남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통일신학의 고통과 승리」 역시 1,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이화여대 봉직 22년의 은퇴강연과 설교 그리고 출감 향린교회에서의 설교, 목원대에서의 고별강연, 그외 범민련결성과 관련, 공안당국의 탄압에 대한 반박논문 들이다. 2부는 책표제대로 통일신학의 고통과 승리로서 서울지방경찰청 대공1분과에 구속에서부터 송치, 구치소 생활, 재판, 출감과 정과 석방대책위 나라 안팎 친지들에게 드리는 말씀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부록이 실려있다.

부록은 공소장, 모두진술서, 변론요지서, 최후진술서, 항소이유서, 변호인 심문사항 등 재판기록과 박형규목사, 김경재교수, 김준영목사, 이삼열교수 강정구교수 함세웅신부님들의 박순경교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와 촉구대회에서의 발표문헌들이 있다. 그리고 박교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내외의 많은 분들과 주고 받은 편지 수많은 사람과 단체들의 석방성명서,

탄원서 청원서, 구속에 대한 항의서, 성명서와 방청기, 사건일지, 신문스크랩으로 차 있다.

동경강연에서의 주체사상, 수령론, 인간개조론, 집단영생론 등의 신학적 재해석을 가한 것을 공안당국이 주체사상 수령 찬양론으로 둔갑, 기소했다고 반공목사와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모두진술은 주체사상이 존재와 사유, 물질과 의식이라는 마르크스의 이분법에 대해 그 양면을 통합 통전적으로 파악 인간을 주체로서 설정한데 대한 기독교 선교의 물꼬를 트기 위해 선교신학적 접근시도로 비판했을 뿐이며 잣대미로 된 북한을 재건하고 약소민족이 미·일등 강대국에 대한 자주성을 지키려는 북한사회의 특수한 조건인 한에서 절대적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 상대적 평가로서 비판했다고 항변했다. 다음은 모두진술의 일부분이다.

“민족해방과 민중의 생존권 확립이라는 이중의 과제에 교회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민족을 위한 설교를 수행할 수 없다. 복음선교는 말로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민족·민중을 위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앞에서 우리 민족이 자유하도록 즉, 세계의 지배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주적 민족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민족적 삶 자체로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그의 영원한 나라의 도래를 민족전체에 또 세계에 증언하는 것이다. 민족의 분단 냉전체제는 미·일은 물론 소련도 포함한 세계의 지배세력들에 의해서 연유되었으며, 민족모순을 심화시켜 왔다. 우리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은 그러므로 민족해방의 핵심적 과제이다. 피압박 약소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자주적으로 확립된다는 것은 지배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해방이 바로 민족선교의 과제이다.

목사들이 민족복음화 선교를 주장하면서 민족해방이 왜 필요한지도 몰라서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평화통일을 운운하다니!

1992년을 보내면서 이 두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값진 한해를 보낸 것으로 감히 권하고 싶다.

편지를 보냅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여느 해 보다 일찍 시작된 겨울, 매서운 칼 바람이 감옥 안의 보잘것 없는 이부자리를 파고 들 때
여러분이 보내는 편지 한 장은 따스한 입김처럼 수인들의 언 몸을 감쌀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홍명기 선생님 (대구 3125) 1929. 4. 5일생 (64세) 1962. 4. 5. 구속. 무기형 31년 복역

충남 부여에서 출생 50년 고등학교 재학중 민주청년동맹원으로 활동하다 인민군에 입대 전투에 참가하고
제대후엔 평남 순안군당 지도원으로 일했다.

1962년 당에 소환되어 고향에 왔다가 체포. 무기확정되었다.

말없이 조용한 성격이나 투쟁에서는 완강하고 '책벌레'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책과 가까운 편. 영어, 일어,
노어, 중어, 독어를 독학으로 공부했다.

■ 안학섭 선생님 (대전 3536) 1930. 4. 7일생 (63세) 1953. 5. 구속. 무기형. 40년 복역.

경기 강화출생. 개성에서 중학교 다니다 전쟁을 맞게 되고 민주청년활동을 하다 9. 27 때 경기도당과 함께
후퇴했다. 강동정치학원에서 교육받고 52년 경기도 빨치산으로 태백산맥에서 활동중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53년 체포되어 군법에서 무기확정. 오랜옥고와 고문, 구타에도 굴하지 않고 수십차례 단식투쟁을 하다가 위장
병이 생겨 고향하고 있다.

강화에서 농사짓는 형님이 뒷바라지를 한다.

■ 홍경선 선생님 (대전 3501) 1925. 5. 21일생 (68세) 1967. 9. 17. 구속. 무기형. 26년 복역.

충북 조치원 출생. 청년시절부터 남로당에 입당하여 활약. 전쟁전부터 입산, 유격활동한 구빨치산. 전쟁동
안에도 6지대 소속 빨치산으로 소백산맥에서 활약했다. 52년 전쟁이 교착상태로 되자 부대와 함께 입북. 금강
정치학원, 송도정치경제대학에서 3년 수학했다. 졸업후 함남 단천 마그네사이트 공장 직업동맹위원장으로 있
다가 당에 소환 남파되었다가 체포되었다. 혁명가적원칙과 기질을 가진 분으로 한달간의 단식투쟁으로 쓰러져
교도소 당국에서 죽었다고 시체처리 하려 할 때 기적적으로 회생한 것으로 유명하다.

폐결핵,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지만 낙관적 성격으로 이겨 내고 있다.

주소: 305-251, 대전 직할시 유성구 대정동 36

711-830, 경북 달성군 화원면 천내동 147

■알려 드립니다.

- 11월 1일/ 출소장기수 김해섭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문상다녀왔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 11월 5일/ 조영삼씨 —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11월 6일/ 민가협 운영위원회 열렸습니다.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 11월 9일/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분반모임 활성화문제, 조무하 부회장 구속 대응 문제,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준비, 산행, 장기수 영치금 발송 등 토의와 결의 하였습니다.
- L A 양심수 자녀돕기 모임에서 300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전재순, 이철우 자녀에게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11월 12일/ 박순경 교수님 저서 「통일신학의 여정」, 「통일신학의 고동과 승리」 출판기념모임이 YMCA강당에서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인세를 고난받는 여러분(모임)을 위해 쓰셨는데 양심수 후원회에도 200,000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낙중씨 첫 공판 모두진술 방청하였습니다.
- 11월 13일/ 조창손 선생께서 위염으로 성기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하셨습니다.
- 11월 14일/ 조무하 부회장을 서울 구치소로 면회다녀왔습니다.
탄압속에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셨습니다.
- 11월 15일/ 11월 후원회 분반모임 산행이 있었습니다.
비·바람 무릅쓰고 김승규, 허유정, 김호현, 최애경, 오정환님 등 처음 오신분을 비롯 18명이 함께 했고 도봉입구 → 우이암 → 우이동으로 오는 도봉종주를 하였습니다.

- 11월 17일/ 독일 한인교회 토요일기도회에서 1,000마르크를 성금해 주셨습니다.
양심수를 위해 고맙게 쓰겠습니다.

- 11월 18일/ 이근희, 진용근(중부당) 첫 재판 방청했습니다.

- 11월 19일/ 장기수 석방과 후원을 위한 공동모임이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교 인권위, 양심수 후원회, 장가협, 천정련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11월 21일/ 양심수들이 재소자 인권문제로 단식농성을 하였습니다.
의정부교도소 양심수들이 13일~22일까지 단식농성을 하였고 민가협 어머니들이 16일~22일까지 교도소앞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안양교도소 양심수들도 9일간 단식농성을 했고, 어머니들이 함께 싸웠습니다.

- 11월 24일/ 소식지 13호가 늦게 발송되었습니다.
장기수 다섯분께 「말」지를 보내드렸습니다.

- 11월 25일/ 정언영, 정인미, 임명규, 심상득(중부당 사건)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 11월 26일/ 양심수 후원회 분반모임이 있었습니다.
산행, 편지쓰기, 자매결연, 방문 등 분반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11월 27일/ 출소장기수 일곱분께 현대교회 성금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기부, 민가협가족 연쇄 연행

27일—임상진(전대협 의장 임종석 아버지), 28일—박광숙(전 민가협 총무)
29일—김남주(전 민가협 간사)씨가 안기부에 연행되었습니다.
48시간 또는 24시간만에 풀려났습니다.

- 11월 30일/ 장기수 93명에게 15,000원씩 영치금을 보내드렸습니다.

- '만남의 집' 마련을 위한 「말」지 광고비(10, 11월분)을 지출하였습니다.

■ 12월 재판 안내

- 12월 16일 황인옥(중부지역당)—2시, 318호
은재형(중부지역당)—2시, 417호
우진성(중부지역당)—10시, 318호
김현찬(중부지역당)—10시 30분, 311호
- 12월 17일 송혜숙(중부지역당)—2시, 318호
김동훈(중부지역당)—2시, 321호
- 12월 21일 최호경(중부지역당)—10시, 425호
김정기—2시, 417호
- 12월 22일 조무하(국가보안법)—10시
송창근(사노맹)—10시
윤정환(중부지역당)—10시
손명선(중부지역당)—2시, 311호
- 12월 23일 태재준(전대협위원장, 국가보안법)—2시, 417호
강영환(사노맹)—2시
심상득(중부지역당)—10시, 523호
이근희(중부지역당)—3시, 317호
장용근(중부지역당)—
임병규(중부지역당)—2시, 523호
정언영(중부지역당)—
정인미(중부지역당)—
- 12월 24일 최만식(전대협, 국가보안법)—10시, 성남1호 법정
신동욱(중부지역당)—10시, 318호
김낙중(국가보안법)—2시, 417호
전제순(중부지역당)—10시, 320호
- 12월 28일 우진성(중부지역당)—10시, 311호
김현찬(중부지역당)—10시, 311호
- 12월 29일 김표무(중부지역당)—10시, 318호
노중선(국가보안법)—2시, 318호
- 12월 30일 황인오(중부지역당)—2시, 417호
변의숙(중부지역당)

■ 11월 구속자 현황

- 11월 3일 성두현 (34세, 서울대 경제학과 졸) — 노동자 계급해방투쟁 위원회 사건, 국보법
 문용주 (29세, 서울대 경영학과 3년) "
- 박철수 (26세, 서울대 공업화학과 4년) "
- 조휘택 (27세, 서울대 무기재료학과 졸) "
- 이철수 (31세, 홍익대 경제학과 졸) "
- 양승호 (27세, 서울대 공업화학과 졸) "
- 김상희 (27세, 서울대 간호학과 4년) "
- 11월 11일 유상욱 (31세, 전농, 전남도연맹 사무국장) — 수매시위
 윤영생 (31세, 전남 해남군농민회 사무국장) "
- 11월 12일 오순부 (52세, 인천지역 노동상담소 소장) — 선거법
 김영옥 (27세, 한국중공업노조 노보편집실장) — 공정선거 유인물
 박미숙 (20세, 경상대 사회학과 3년) — "
- 11월 13일 김유미 (33세, 서울대병원 노조위원장) — 병원비리 유인물
 국중홍 (34세, 서울대병원 노조총무부장) "
- 11월 16일 허연도 (43세, 마·창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 노동쟁의조정법
- 11월 18일 심재철 (34세, 문화방송기자) — 문화방송노조 파업관계
- 11월 19일 김부겸 (35세, 민주당 부대변인) — 국가보안법
- 11월 22일 김인배 (30세, 진주지역노동조합연합회 의장) — 공정선거유인물
- 11월 25일 문순덕 (26세, 한국슈어프로덕츠 노조위원장) — 노동자정치활동센터 조직사건, 국보법
 이경재 (26세, 서강대 수학과 졸) "
 강영심 (24세, 태광하이텍 노조위원장) "
 한영숙 (23세, 나우정밀 노조위원장) "
 정서영 (26세) "
- 11월 27일 서준석 (33세, 정읍군 북면 신평리) — 벼수매시위
- 11월 28일 서인석 (22세, 목포대 전자공학과 2년) — 대선유인물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양심수 석방사업 적극지원
2. 장기복역 양심수 후원사업 (정기적 영치금 발송, 책자, 영지품 지원)
3. 지국사범 후원사업 (비정기적 영치금 발송)
4. 석방된 장기복역 양심수의 생계지원, 생계터전 마련사업 (구로동 '민남의 집' 운영)
5. 장기복역 양심수, 석방자 중 무의탁자와 자매결연 추진

○이용하실 승금구조 ○

제 일 은 행 128-10-201180 (양식수후원회)
서울신탁은행 15701-89000531 (양식수후원회)
국 민 은 행 006-01-0601-098 (양식수후원회)
농 협 053-01-112692 (양식수후원회)



농민회소식

보내는이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110-542)

받는이 :